

02

정보 사회와 윤리

성·취·기·준

-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
-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 정보 기술 발달과 정보 윤리

생각해 봄

정보 사회의 빛과 어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시공간적 제약 극복

조직,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직접 연결하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수정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삶의 편리성 증대

은행 업무, 전자 상거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증가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판옵티콘**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평적·다원적 사회 변화

수평적·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다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판옵티콘(panopticon)**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어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 구조이다.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 비판적인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복제, 표절, 사이버 폭력,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가 순식간에 생겨나는가 하면, 생산된 정보의 전달 속도도 빨라져 정보의 파급 효과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 5 **저작권 문제** 정보가 지닌 가치가 증대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copyright]과 사회적 산물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copyleft]으로 나누어 논의된다.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여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

- 지적 창작물은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독점한다면 지속적인 정보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한 걸음 더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 지적 재산권: 지식, 정보, 기술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대한 권리이다.
- 저작권: 지적 재산권 중에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보호하는 재산적 측면과 저작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격적 측면을 포함한다.

- 15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은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은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통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 20 생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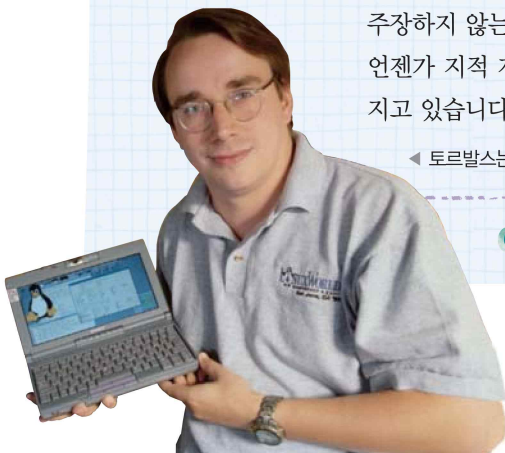
정보 공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새로운 운영 체제(OS)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해 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꼭 평을 남겨 주세요.” 토르발스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 새로운 운영 체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 달라고 부탁하였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은지를 알려 주었다.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은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그가 만든 운영 체제는 결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기술 세계를 원합니다. 나는 언젠가 지적 재산권 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닌 도덕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 토르발스(Torvalds, L.), 『리눅스, 그냥 재미로』 —

◀ 토르발스는 컴퓨터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운영 체제인 리눅스(Linux)를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Q 위와 같은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잊힐 권리**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하면서 등장한 권리이다.



사생활 침해의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사적인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기도 하고, 유출된 개인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감시나 침해,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더 나아가 정보의 유통 과정 전체에서 개인이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활발한 사회 참여와 연대를 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요구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다.

사이버 폭력의 문제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영상 등을 이용해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에는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현실 세계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나누는 가을



윤리적 실천 방안 제안하기

‘잊힐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한다면?

잊힐 권리는 어느 변호사가 “과거에 빛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된다. 이미 해결된 일이 계속 검색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라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받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개인 정보의 삭제를 대행해 주는 웹 사이트에는 개설 첫날부터 1만 2천 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쇄도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설립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행동은 신문사가 기사 1면에 어떤 기사를 실을지 편집권을 행사한 것과 같다.”라고 비난하였다.

— 『조선일보』, 2016. 4. 12. —

다음 사례에 제시된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야기해 보자.

예) 국제 경기에서 오심을 한 심판, 현재의 연인에게 과거의 연애 경험을 숨기고 싶은 대학생

사생활이니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라.





정보 사회에 필요한 정보 윤리

정보 사회에서는 거짓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포되고 재생산되면 파급 효과가 크고, 해악성이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상 공간의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각 개인은 규범적인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환경, 가상 공간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과 가상 공간의 행동 주체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정보 윤리의 주요 주제는 인간성 존중, 자유, 평등, 책임, 정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익명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등의 무책임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나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한 걸음 더

»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

- 자율성의 원리: 스스로 도덕 원칙을 수립하여 행동하고 타인의 자기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
 - 해악 금지의 원리: 남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을 피해야 한다.
 - 선행의 원리: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 정의의 원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혜택이나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 스피넬로(Spinello, R.), 『사이버 윤리』 —



생각이
겨울



정보 윤리의 원리

첫째, 지적 재산권 존중의 원리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노동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문화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사생활 존중의 원리이다.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합당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한 표시의 원리이다. 주로 제품의 판매자가 그들의 제품과 제공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일과 관련된다.

넷째, 해악 금지의 원리이다. 해킹, 사이버 범죄, 불공정 경쟁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한다.

— 세버슨(Severson, R.), 『정보 윤리학의 기본 윤리』 —

쉬운 해설

세버슨은 정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하였다.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정보 소유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도덕적인 윤리 의식을 가지고 서비스 내용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과 범죄 등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